

사설

대통령 당선자에게

새 대통령은 하루빨리 선거분위기를 떨칠 것을 당부한다. 승리의 환호에 도취될 계기가 아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의 골을 메우고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의 앙금들이다. 승자는 패자를 다독이는 결례를 보여야 하고,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는 금도를 보여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의리와 정실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정치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세력이 필요한 게임이다. 그러나 일국의 운명을 걸머진 대통령이라면 자신을 지지해준 특정 지역과 계층, 혹은 세력을 과감히 부정하는 용기와 결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온 국민의 일치단합과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주의와 연구주의에 입각한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고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정

고 가야 할 약역이다. 지도자란 고독하고 의로운 직책인 것이다.

새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국가주도형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줄 것을 당부한다. 해방 이후 반 세기에 걸친 근대적 가치와 관행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농경사회의 유습에 젖어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물체제를 단위로 하는 폐쇄적 율타이다. '우리'라는 말은 밖으로는 배타적 적대감을, 안으로는 비합리적 일체감을 고취한다. 그것이 정치적 권위주의를 가능하게 한 심리적 요인이었다. 전체의 관과 의사가 주도하기에 개인은 무책임과 무비판, 그리고 타자의 존을 피할 수 없다. 전체의 목표를 정하고 동원의 계기가 마련되면 이 모델은 이상 못한 폭발력을 갖는다. 이 점에서 박정희의 선택은 옳았다. 그러나 상장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지도력이 부재할 때에는 감찰할 수 없는 위기의 광장을 밟고 온다.

정부는 그 동안 모든 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해왔다. 정부가 공유되고 자본의 통로가 자유로워지면서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되는데도 옛적의 사고와 관행을 고집하면서 위기는 다가왔다. 정부는 시장을 무시하고 환율과 주식시장을 통제해나라 귀한 달러를 허비했다. 기업의 부도를 책임져주고 은행의 파산을 막아주며, 개인의 투자를 보호해주느라 동분서주했다. 그 부담은 억울하게도 국민 전체에게로 전가되었다. IMF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원칙은 투명성과 자율성이다. 정부는 자신의 독점을 포기하고 권한을 민간의 자율에 이양하는 혁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각 단위에게 행동의 주체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그 선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합리적 가치관행 정립시켜야 한다. 그것이 위기극복의 초석이다.

새 대통령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대중은 자신의 복리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이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경험과 한정된 시야에 묶여 있다. 대중들에게서 이기적 자아를 넘어 보편적 가치에 착목하는 시민적 덕성과 문화적 교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의 선택을 이끌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 그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표를 의식에 남발했던 수많은 공약들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 대통령 앞에는 이제 실재상황이 펼쳐져 있다. 그 문제들은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이다. 대통령은 내키지 않는 대중들의 걸음을 설득하며 이끌

군종교 형평성 논란 다시 일듯

3당 '1인1종교' 지지... "개신교 우위 제도적 보장"

군종장교 장군 가능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이 군내 1인1종교가치운동을 지지하며 군종장과 최고책임자의 장군계급 부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당은 16일 개신교측 군종대책위원회가 각당에 보낸 군종정책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군내 종교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군종대책위원회 질의에 △1인1종교가치운동은 정신전력 증강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유지하도록 하겠다 △군종장교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장군계급부여와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군내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1인1종교가치운동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

진되어야 한다 △군종병과 최고책임자의 계급은 군내 타병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신당은 △장병 1인1종교가치운동은 그동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개하였던 만큼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종병과장도 필요하다면 장군계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을 요구한 한 군법사(대위)는 각 정당의 1인1종교가치운동 지지와 군종병과장의 장군계급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군법사는 "현재와 같은 군종장교 수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1인1종교가치운동과 군종병과장의 장군계급은 개신교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법사는 117명, 군목은 330명, 군신부는 70명이며, 군종병

과와 최고책임자는 국방부 군종실장인 박성대신부(대령), 육군 군종감은 박육병목사(대령, 군종목사(장교))이다.

조계종포교원은 3당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군종장교 수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방부의 군종장교 수 조정(2002년까지 불교 180명, 개신교 260명, 천주교 66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장병들의 종교편향 조사도 군종장교들의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부대장이

직접 조사해 실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당시 이회창 김대중후보는 본지의 종교정책 질의서 답변에서 각각 "1인1종교가치운동은 권장사항이다. 일률적으로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1인1종교가치운동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종교를 안 가질 권리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보문종 총무원장 헤일스님 재선출



보문종 제10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헤일스님이 재선출. 90년 이후 3대째 연임하게 됐다. 보문종은 15일 보문사 선불전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무원장에 헤일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고, 공석중인 원로원장에 헤일스님(전주 정혜사), 부원장에 지성스님(보문사)을 새로 선출했다.



◇월주스님을 비롯한 6대종교지도자들은 15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 근로자 언론 종교인들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민단결 경제위기 넘자"

불교등 6개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불교 천주교등 6개 종교 대표자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 근로자, 언론의 자성과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최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홍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근덕 유도회중앙회장, 김재중 천도교교령, 조정근 원불교교정원장, 한양원 한민족종교협의회회장 등 6명의 종교지도자는 15일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러 종교지도자들은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 절감, 정부조직 축소등 뼈를 깎는 아픔으로 슬선수행할 것 △기업은 근원적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실시할 것 △근로자는 임금 인상 억제등 고통을 감내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언행을 자제할 것 △언론은 보도경쟁과 과소비 조장을 지양하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 △모든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과 소비 절약에 합심, 국민대합의를 이루어 낼 것 등을 호소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또 "종교인들도 근근 절약,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합심, 국민대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지도자협 이사회 27일 내내 사업등 심의

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월주) 이사회가 27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금년 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실천운동 등 각 종교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감사, 경내지수용 중토위에 이의신청

계룡산 감사는 13일까지 토지계약결을 통보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사경내지 수용결정에 대해 중천 거부키 하고 2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경내지에 청소년 야영장이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전통사찰 수행환경

의 파괴와 개발이전에 해당사찰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한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의 위법"을 지적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는 감사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보상비 16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려스님

공로상에 현진스님·현각스님·임장수씨

조계종포교원은 17일 제9회 포교대상 공로상 원력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중정상인 대상에는 어린이 및 유아포교에 공로가 큰 정려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인더부 4면)가 선정됐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장), 임장수씨(서울구치소 불심회장)가 영예를 안았다.

현진스님은 선재유치원과 광명어린이집 일요불교학교를 개설해 유아·어린이포교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현각스님은 원주시립복지관을 운영하며 행려자의 자활을 돕고 영세민자녀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장수씨는 서울구치소 불심회를 창립하여 주요사범 및 5백여명의 시국관련 사범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등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력상(포교원장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역포교·승우스님(청교련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고우익(동대부교 교법사) △청소년·이용의(전주중앙영교 교사) △직장·왕경태(방송인불자연합회 사무총장) △방송·연예·이은하(가수) △호법·홍성덕(육군특수전학교 해설 폭로) △군포교·전창웅(육군보병학교 군법사) △신행단체·조순종(경주 불국대보좌장).

조계종 새 포교사 405명 탄생

포교원 합격자 발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7일 제3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1월 23일 실시한 이번 포교사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는 김호철씨(군산경찰서 교무과조사과장, 인더부 4면)가 안았다. 차석 및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는 김은경(국군백제병원 의무사령부 근무), 권영성(72), 김미영씨(23, 광주 남구복지회관 근무)로 밝

혀졌다. 합격자는 출신 불교대학에 통분된다.

포교원은 내년 1, 2월중 각 포교지단별로 합격자 대상의 연수교육 실시 후 포교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포교사고시에서 수석과 차석합격자 모두 동산 불교대학 졸업자들이 차지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예년에 비해 응시자가 수가 가장 많았고, 면접을 통해 강한 포교의지를 확인했다"고 이번 포교사고시를 평가했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지역화합정치



경제살리기에 함께

737-8881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장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마의 태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쿼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리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응체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어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딱딱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감성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종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